악당들의 보물찾기 따라 하기

(엡2:1~10)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악당들의 보물찾기 따라 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보물찾기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을 맡았던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를 필두로 해서 '레이더스'라는 이름하에 서너 편 이상 영화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첫 번째,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에요.
TV를 틀면 영화의 중간부터 보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보다가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물찾기를 주제로 한 모든 영화의 공통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대에는 있었으나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보물에 대한 전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보물지도 등의 단서가 꼭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인공은 대부분 고대의 유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고고학자이거나 아주 저명한 역사학자, 대학교 교수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보물찾기를 주제로 한 영화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나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그 보물을 노리는 악당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악당들이 보물을 찾을 때는 절대로 보물을 직접 찾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동태를 계속 주시하고 파악합니다.
그리고 몰래몰래 따라갑니다.
그랬다가 주인공이 보물을 찾게 되는 그 순간 뒤에서 덮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보물을 탈취하는 것이죠.

악당이고 악역으로 나온 사람들이 하는 짓이니까 나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것 참으로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내가 그 전설로 내려오는 고대 보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 탁월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주인공들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보물 갖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갖고 싶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결국 보물찾기와 같은 거예요.
그 보물을 잡으면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그 보물을 잡으면 만족한 겁니다,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보물찾기에요.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보물찾기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처럼 지혜롭지 못해요.
아무도 예수님의 동태를 파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태를 파악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보물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부릅니다.
이건 영화 속에서의 내용과는 거꾸로 되었어요.
악당들이 보물을 먼저 알고 그 주인공 고고학자를 고용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악당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주인공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걸 찾아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따라갑니다, 보물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엔 보물이 있으니까 뒤에서 덮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동태를 파악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불신앙이 있고 정말 안타까운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보물찾기를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악당들이 보물을 찾는 것처럼 지혜롭게 제대로 보물을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악당들의 보물찾기 방법을 따르면서 말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일생동안의 동선을 파악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동선은 그 한계가 어딘가, 예수님의 동선의 boundary와 윤곽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서가 될 만한 단어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2절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공중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동선 속에 포함되는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할 때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하늘에 앉게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움직이신 동선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하늘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으키사'라는 것은 십자가사건을 전제하는 건데, 십자가사건이 일어난 곳은 이 땅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굉장히 치명적으로 중요한 성경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3층 세계관이에요, 3층 세계관.
순서대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과 주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함께 계시던 하늘로서의 천국이 있고, 그 아래 마귀가 현재 지배하고 있는 공중이 있습니다.
그 공중이 바로 마음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차원.
그 다음에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라고 말하잖아요? 그 육체가 있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3개의 차원의 세계가 겹쳐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의 인간, 60억 인구 모두에게 3개의 층이 겹쳐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윤곽을 알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자, 창세전, 공중과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 땅이라는 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런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계시던 곳, 하늘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피조된 이 인간세상으로 육체를 입고 내려오시게 됩니다.

동선이 만들어지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실 때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가난한 집의 아들딸들도 그렇게 태어날 수는 없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아무리 허름해도 자기 집에서 태어나지 누가 마구간에서 태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목수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층민 계급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생애를 사시는데, 머리 둘 곳도 없이 공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없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온갖 능력과 지혜를 다 갖고 계시면서도 결혼하시지도 않고, 집 한 칸 마련하실 의도도 없고 이 세상에서 출세에 대한 욕구도 없으셨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가 하이라이트에요, 예수님의 동선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갖고 계시면서도 이 세상에서 좋은 것 한번 지니지 못하신 이유가 하나님아버지의 십자가를 향하라고 하신 명령 때문이었다면, 부활하신 뒤에는 얼마든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40일 동안 제자들을 단속하시고는 하늘로 훌쩍 가버리십니다.

하늘에서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시다가 온갖 능력과 지혜가 있으심에도 머리 둘 곳도 없이 공생애를 사시다가 마치시고 온갖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죽으신 다음에 짜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지켜봤는데, 40일 동안 제자들만 단속하시고는 하늘로 가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해볼 때 결론은 하나에요.
삼척동자도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이 지구 위에,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이 땅 위에는 예수님이 알고계시고 예수님이 찾으려고 하신 보물은 없다! 라는 결론입니다.
아~무 미련도 없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머리 둘 곳도 없이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곧장 이 지구를 떠나셨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해서 예수님이 보물을 찾을 때, 우리가 덮쳐야 하지 않습니까? 악당들이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걸 보니 이 지구 위에는 보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집트 파라오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산더미 같은 보물도 보물이 아니고, 진시황

릉에서 발굴된 그 수많은 값비싼 유물도 보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랜드캐니언이나 로키산맥이나 이구아스 폭포같이 경이로운 장관을 이루는 대자연도 예수님께 보물이 아니고, 남태평양의 에메랄드 빛 바다 위에 떠있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섬들도 예수님에게는 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서 대통령의 자리가 보물입니까? 재벌총수의 자리가 보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이 지구에는 보물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갖고도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으면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장소가 지구라는 거예요.
보면 이걸 모르겠어요?
근데 웃기게 사는 거예요.
그 웃기게 사는 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 지금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교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계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이 지구 위에 보물이 있는 줄로 알고 헐떡거리며 보물을 찾고 있는 거라는 얘기에요.
분명히 지구 위에 보물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들입니다, 이게 세상풍조를 따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갑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되요? 이 지구 위에 보물이 있다, 이게 속임수거든요.
노숙자들 중에 가만히 보면, 어디서 구했는지 마켓에서 사용하는 카트를 하나 구해서 거기다가 온갖 잡동사니를 담아가지고 보물 다루듯이 끌고 다니는 걸 가끔 봅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온갖 잡동사니들이 보물로 보이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대통령 자리가 보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돈이 보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재벌총수 자리가 보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자연경관이 보물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아닙니다.

남대문이 왜 보물입니까? 그 까짓 게.
그건 보물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물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게 마귀의 역사이거든요.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화란 영광스러운 빛, 화려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마음에서부터 갖게 됐다는 얘깁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그런 걸 보잖아요, 번쩍번쩍한 금은보화 보석,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이런 것이 잔뜩 쌓였을 때 그 빛이 얼굴에 환히 비치면서 그것을 봤을 때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와~ 하고 감탄하는 그런 얼굴표정, 이게 바로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로움 속에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물은 공중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아닌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대면하고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그리고 창조되기 이전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고.
아버지와 대면하고 있었는데 영화롭습니다.
예수님의 보물은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 지구 위의 어떤 자연경관도 진시황과 바로의 모든 보물을 다 합친 것도 보물이 아니고, 그 모든 게 노숙자가 카트에 담고 있는 잡동사니처럼 밖에 안 느껴질 정도로 보물이 하나님아버지였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동선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아버지를 보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서 덮치는 악당들처럼 예수님을 덮쳐야지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세상에서 빠져나가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빨리 보물이 없는 지구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생각 안 하고 전부 지구에서 보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악당들보다 훨씬 어리석고 멍청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부르면서 이 지구 위에서 보물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해보세요, 어디 지구 위에 보물이 있겠는가.
지구 위에 보물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겠습니까?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물이라 아버지를 갖게 될 경우에 얼굴에서 영화로운 빛이 마구 뿜어져 나올 텐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십자가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허물과 죄라는 게 뭐예요?
허물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떨어진다, 내가 지금 서있는 강대상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죄라는 것은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하나님이 아버지하나님을 가지시면서 영화로울 정도로 행복해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행복을 주기 위해서 아들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 보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허물입니다.
그리고 죄는, 창세전에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아버지를 향해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아버지를 가졌어야 되는 건데 빗나가버렸어요, 이 지구 위에서 보물을 찾는 거예요, 그게 빗나간 것이고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들 되심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허물이고, 벗어나서 보물이신 하나님 대신에 이 지구 위에서 딴 보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 빗나간 것이고 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십자가사건을 통해 '이 지구에는 보물이 없으니 빠져나가자!'고 하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때문에 고민한다고 그러면 자식을 암만 잘 키워봐야 자식으로부터 보물은 못 얻어요.
그러니 자식이 문제를 일으킬 때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자식의 인생으로부터 내 보물을 캐려고 하지 말고, 거긴 보물이 없으니 십자가 붙잡고 빠져나가라는 얘깁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사업이라는 현장에서 보물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거기는 내 마음을 만족시킬 보물은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붙잡고 사업장으로부터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승천 하신 주님의 그 동선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하늘로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아버지와 마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아버지 보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가졌던 우리의 영화로움을 저들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요한복음에서 하십니다.
이걸 갖자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지구에는 보물이 없다,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해볼 때 지구에는 보물이 없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나님이 보물이시다,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라는 그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하나님을 가지시면서 완전히 주님의 얼굴에 마음 안에 들어오신 아버지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오신 겁니다, 행복과 기쁨의 빛이.

이게 두 번째 결론이고, 세 번째 결론은 뭐냐?
그러면 왜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런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
세 번째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보물을 하나님이 또 찾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보물인 하늘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아버지의 보물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아버지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 노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 풍성함의 노래가 뭐예요? 보물노래에요, 보물노래.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런데 서로 잃어버린 보물을 어떻게 찾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찾는다, 라는 노래를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부르라는 겁니다.
세상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이 지구의 보물이 있는 줄 알고 헤매고 있는 이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줘서,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니까 이 지구 위에는 보물이 없더라,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아버지가 우리의 보물이신데 그 보물을 찾게 하시려고 십자가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십자가사건이 일어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아버지의 보물이라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당신의 보물인 나를 찾기 위해 십자가사건이 일어났더라!'

이 보물의 노래를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부르면서 살아라,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나 어

디를 가든지 보물의 노래를 부르는 보물노래의 가수들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악당들의 보물찾기처럼 주님의 동선을 파악하면서 날마다 내 보물을 찾고 확인함으로 나 역시 하나님께 보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예수님의 동선을 하루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잃어버렸던 나의 보물이신 아버지를 찾게 해주시며, 그럼으로써 아버지가 또한 나를 찾아 내가 아버지의 보물로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